

# ‘여름 보너스’ 중간배당 앞둔 은행株... 상승랠리 기대감

금융권 배당 축소 권고 이달 만료  
KB 등 4대은행 배당 확대 움직임  
올해 1분기 국내은행 NIM 1.43%  
실적개선·배당확대 주가 긍정적



중간배당이 예상되는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권고한 은행의 배당 제한 권고조치도 이달 말 만료된다. 은행은 주주환원정책에 따라 중간배당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은행주 주가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오는 6월 말까지 적용한다. 주요 금융지주의 배당(중간배당, 자사주 매입 포함) 성향을 기존 25~27% 수준에서 20% 이내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으로 인해 확진자수가 감소하고, 경

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배당 제한 권고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업계의 해석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주주환원을 위해 분기나 중간배당 확대를 준비 중이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는 지난 3월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 확대를 주요 안건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특히 하나금융을 제외한 KB·신한·

우리금융의 경우 중간배당을 실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지난 10일에는 JP모건이 주관한 해외투자자 대상 온라인 기업설명회(IR)에 4대 금융지주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해 중장기적인 배당 확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JP모건은 KB·신한·하나금융의 주요 주주이다.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배당 성향을 2023년까지 30%까지 상향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면 보다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도 “최고 수준의 자본 여력을 바탕으로 분기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등 다양하고 신축적인 주주 환원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배당성향이 중장기적으로 30%는 돼야 한다는 게 일관적인 생각”이라며 배당 확대의지를 재확인했다. 하나금융은 김정태 회

장 대신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2005년 창사 이래 매년 중간배당을 이어왔다.

또 은행의 순이자마진(NIM) 개선이 이뤄져 2분기 실적 기대감도 높은 상태다.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던 순이자마진은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자 반등하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국내은행의 NIM은 1.43%로 집계됐다.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해 4분기(1.38%)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실적 개선과 배당확대가 이뤄진 후 은행주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은행주들은 올해 들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하나금융지주는 29.7%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코스피의 상승률(13.4%)을 두배 이상 웃돌았다. 이어 KB금융(28.8%), 신한지주(28.5%), 우리금융지주(17.6%) 등의

순으로 상승했다.

은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조달금리 하락으로 인한 NIM 개선 효과는 2분기에 정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중기대출 금리 반등 여부가 하반기 NIM 방향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금융 지원 종료 시점을 전후로 점진적인 정상화 과정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지난 4월 이후 은행주 강세는 NIM 개선이 크게 기여했지만 시장금리 상승세가 주춤해졌기 때문에 향후 은행주는 상승세가 지금보다 소폭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2분기까지 NIM 확대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 은행 이익의 변동 폭이 크지 않아 이익 자체보다는 금리와 순이자마진, 그리고 배당 등의 투자 변수가 주가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 대우건설, 나이지리아 액화플랜트 사업 착공

부하리 대통령 등 추진 공식화  
Train 8 사업 추가 참여 기대



나이지리아 보니 LNG플랜트 전경. /대우건설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 보니섬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액화플랜트 원청사로 참여하고 있는 NLNG Train 7 사업의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NLNG Train 7은 나이지리아 리버스주의 보니섬에 위치한 LNG 액화플랜트 및 부수설비로 계약금액은 총 5조 1811억원이다. 원청사로 참여한 대우건설의 지분은 약 40% 수준으로 약 2조 669억원 규모다.

이 프로젝트는 일부 글로벌 건설사들이 독식해온 LNG 액화 플랜트 건설 EPC(설계·조달·시공) 시장에 대우건설이 원청사 지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기존 NLNG Train 1호기부터 6호기 중 5개를 시공한 실적을 보유하며 나이지리아 내 최고의 건설사로 인지되고 있는 대우건설의 풍부한 사업 경험, 보유 리소스, 현지 사정

에 적합한 수행계획 등이 높게 평가되어 수주에 성공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5월 NLNG Train 7 원청계약을 체결했으나 코로나19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고자 설계 및 구매 업무를 중심으로 공정을 수행해 왔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이 LNG 액화플랜트 8호기의 추진을 공식화해 눈길을 끈다. 대우건설이 나이지리아 건설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

고 있는 만큼 향후 Train 8 사업이 본격화할 경우 추가적인 사업 참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전망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친환경 에너지로 평가되는 LNG 액화플랜트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향후 관련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성장과 수주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나이지리아 NLNG Train 7 사업은 대우건설이 글로벌 건설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yw964@

## 국내·美 물가 연동채 ETN 등 4종 선배

메리츠증권, 국내 ETP 시장 첫 시도  
물가 따라 채권 원금·이자 동시 ↑

메리츠증권이 국내 물가연동 국채와 미국 물가연동채(TIPS)를 각각 추종하는 상장지수증권(ETN) 4개 종목을 상장했다. 국내 상장지수상품(ETP) 시장에선 첫 시도인 만큼 향후 성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메리츠증권은 한국거래소에 ▲메리츠 인플레이션 국채 ETN ▲메리츠 레버리지 인플레이션국채 ETN ▲메리츠 미국 인플레이션 국채 ETN(H) ▲메리츠 미국 레버리지 인플레이션국채 ETN(H) 총 4개 종목을 상장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며 물가연동국채와 미국 물가연동채가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오른 상황이다. 소비자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구조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ETP 시장은 이와 관련된 종목이 없어 투자자들이 해외 직구로 눈을 돌려야만 했다”면서 “메리츠증권의 이번 4개 종목



상장으로 투자자들이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리츠 인플레이션 국채 ETN은 물가연동국채 3개 종목을 추종하는 상품이다. 메리츠 미국 인플레이션 국채 ETN(H)는 미국 물가연동채 3개 종목을 추종한다.

환헤지를 실시해 환율 변동 위험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해외시장에 상장된 ETP와 차별화된 요소다.

4개 종목 기초지수는 모두 KAP(한국자산평가)에서 산출하며, KAP 홈페이지에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

## KB증권 고객패널 KB스타 메신저 모집

설문 적극참여 고객 중 40명 선정  
서비스 향상 위한 제안 활동 수행

KB증권이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 고객 패널 ‘KB스타(star) 메신저’를 선정한다고 17일 밝혔다.

KB증권은 고객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해 고객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는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고객 패널 제도인 ‘KB스타 메신저’를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KB스타 메신저’ 7기 고객 패널은 사전 온라인 설문에 응답해 적극

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설문에서 고객패널 참여의사를 밝힌 고객 중 총 4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전 온라인 설문은 최근 KB증권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 금융상품을 가입했거나 주식을 거래한 경험이 있는 고객 중 선정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모바일(LMS) URL을 발송해 진행한다.

선정된 고객패널은 ▲온라인전용 금융상품(펀드/ELS 등)과 ▲MTS(M-a-ble) 이용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KB증권 금융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개선 의견이나 요구사항 등 제안 활동을 비대면으로 수행하게 된다. /박미경 기자

투교협, 온라인 특강 진행

## ‘인플레이션과 금융정책’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가 오는 21일 오후 8시부터 ‘인플레이션(Inflation)과 금융정책’이란 주제로 온라인 특강을 실시한다. 특강은 이종우 전(前)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진행한다. 시청방법은 투교협의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TV 채널 중 편리한 채널을 이용하면 된다.

전년도의 낮은 물가에 의한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서비스 물가 상승과 높은 원자재 가격이 더해졌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미경 기자

## 한국투자증권, ELW 235종목 신규 상장

지수형 69종목, 종목형 166종목  
적은 투자금액으로 고수익 기대

한국투자증권은 주식위험트증권(ELW) 235종목(종목번호는 57GJ21~57GL61)을 신규 상장했다고 17일 밝혔다.

ELW는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이나 지수를 만기일에 미리 정해놓은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상품이다. 레버리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초자산을 직접 매매할 때보다 적은 투자금액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에 상장한 종목은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형 ELW 69종목과 포스코,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종목형 ELW 166종목이다. 종목별 만기일은 올해 9월부터 2022년 3월말까지 다양하다.

한국투자증권은 신규 상장 235종목을 포함해 거래 가능한 ELW 총 1673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ELW 발행 증권사 중 가장 큰 규모다. /송태화 기자